

배상문 6년 만에 한국오픈 출전 “건재함 보여주고 싶어”

1R 4언더파 67타로 선두 출발...“최경주 선배 우승보고 감명 받아” 2008·2009 연속 재패...“좋은 성적 내고 PGA투어 참가하고 싶어”

“다시 한번 피가 끓는 경쟁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번 한국오픈에서 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배상문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한국오픈 골프 선수권대회에 출전, 국내 팬들에게 녹슬지 않은 기량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배상문은 20일 충남 천안시 우정힐스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오전에 경기를 시작한 선수 중에서는 공동 선두로 첫발을 마쳤다.

2008년과 2009년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오픈을 연속 제패하는 등 국내 투어에서 9승을 올린 배상문은 이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도 두

차례 우승하며 한국남자골프의 에이스로 군림했다. 하지만 2017년 군 복무를 마치고 필드로 복귀한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배상문은 “골프 연습을 게을리하지도 않았는데 노력이 성적으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면서도 “골프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배상문은 특히 지난 5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54세의 최경주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경기 모습을 보고 ‘젊은 선수들의 기를 죽이지 마시라’며 미국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전화까지 주셨다”고 최경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배상문은 2주 전 KPGA 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

을 차지하며 부활의 가능성을 보였다.

배상문은 KPGA 선수권대회 준우승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아직 내가 골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고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6년 만에 우정힐스 골프장에서 경기를 치른 배상문은 “티샷을 페어웨이에 올린 뒤 아이언 샷으로 오른쪽 퍼트를 남기는 것이 우승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회 우승과 준우승자에게는 7월 18일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브리티시 오픈 출전권을 준다. 2012년을 마지막으로 브리티시 오픈에 나가지 못했던 배상문은 다시 한번 메이저 대회 출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상문은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자신감을 쌓아 미국 대회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배상문은 이번 주 대회를 마친 뒤 7월 11일 PGA 투어 ISCO 챔피언십에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배상문 선수의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 1라운드 경기 모습.

U-20 한국 여자 핸드볼, 세계선수권 조별리그 멕시코 완파

조별리그 C조 1차전 33-20 대승 광주도시공사 김서진 6골 활약

오세일(광주도시공사)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 (U-20)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세계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다.

한국 주니어대표팀은 20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 선수권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33-20(17-9, 16-11)으로 꺾었다.

한국은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멕시코를 제압했다.

특히 차서연(인천시청)이 8골, 김서진(광주도시공사)이 6골을 터뜨리며 활약했다.

초반부터 견고한 수비력으로 멕시코의 공격을 막아낸 한국은 효율적인 윙플레이를 선보이며 경기를 주도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감을 잡은 멕시코가 매섭게 따라붙었지만 한국은 우위를 내주지 않았다.

전반을 17-9로 앞선 한국은 후반전 21-16까지 쫓아온 멕시코에 5골을 연달아 넣으며 10점 차(26-16)로 따돌렸다.

한국은 기세를 이어 33-20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이번 대회 첫승을 기록했다.

1977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한국의 역대 최고



20일 열린 제24회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C조 예선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김서진(광주도시공사)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김서진은 대회 첫 경기에서 6골을 기록했다. <국제핸드볼연맹 홈페이지 캡처>

성적은 2014년 크로아티아 대회 우승이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22년에는 32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2022년 북마케도니아에서 열린 U-18 세계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한국은 2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세계 주니어선수권 정상에 도전한다.

대회 출전한 32개 나라가 8개 조에 편성돼 조별리그를 벌여 각 조 상위 2개국이 16강 결선리그에 오른다.

결선리그는 다시 4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며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에 진출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전남 선수들,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활약

조선대 이새인 여대부 금 등 획득

광주·전남 태권도 선수들이 '제5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에서 선전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남녀 고등부·대학부·일반부 16체급에 선수단 32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학부에 출전한 조선대 이새인이 여대부 -73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대 이사영은 남대부 -74kg급 2위, 김지혜는 -67kg급 3위를 기록했다.

고등부의 활약도 이어졌다.

광주체고에서는 나정후가 남고부 웰터급 2위, 김태유가 남고부 페더급 3위로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또, 남고부 헤비급에 출전한 문성고 이지후는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일반부에서는 광산구청 정형지가 여자일



광주 선수들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치러진 '제5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뽐냈다. 사진은 대회에 참여한 광주대 태권도부. <광주대 제공>

반부 -49kg급 3위를 기록했다. 고흥군청 하선우도 남자일반부 -58kg급 3위로 동메달을 더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08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후 16년 만에 전주에서 열린 전국대회로

체급별 개인 토너먼트로 2분 3회전 뒤 1분 휴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국내 랭킹 포인트가 지급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피는 못 속여~’ 우즈 아들 찰리, 골프대회 예선 1위

US 주니어 아마추어 골프 대회 참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아들 찰리 우즈가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US 주니어 아마추어 골프 대회 지역 예선을 1위로 통과했다.

찰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코럴스프링스의 이글트레이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US 주니어 아마추어 지역 예선 대회에서 1언더파 71타를 쳤다. 경기를 끝낸 75명 가운데 유일하게 언더파 점수를 기록한 찰리는 상위 4명에게 주는 올해 US 주니어 아마추어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올해 US 주니어 아마추어 대회는 7월 미국 미시간주 블룸필드힐스에서 열린다.

76회를 맞는 US 주니어 아마추어는 조던 스피스(2009-2011년), 스코티 셰플러(2013년-이상 미국) 등 현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톱스타들이 우승한 대회다.

찰리의 아버지 우즈는 1991년부터 3연패를 달성했다. 이 대회 3연패는 우즈가 유일하고 2번 이상 우승한 선수도 우즈와 스피스 2명이다.

2009년 2월생으로만 15세인 찰리는 이날 첫 두홀에서 보기, 더블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찰리 우즈.

이후 안정을 되찾고 타수를 만회했다.

찰리의 아버지 우즈는 14살 때 처음 US 주니어 아마추어 본선에 올랐고, 15세 때인 1991년에 처음 우승했다. 이 대회는 대회 종료 시점에 만 19세 미만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베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